

공부 한 맺힌 ‘전교 1등’ 대한민국서 인생 3막 열어간다



제1부-희망 찾기

만학도·실계사로 바쁜 서은아씨

나주에 사는 서은아씨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올해 서른다섯으로 젊다. 하지만 그녀는 인생 3막을 살고 있다. 그녀의 인생 1막은 ‘북한에서의 삶’이고, 2막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신매매된 ‘중국에서의 삶’이다. 그리고 지금 막을 올린 인생 3막은 ‘대한민국에서의 나를 찾는 과정’이다.

◇12살에 배운 ‘미성’으로 가족 부양

은아씨는 1982년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딸만 셋인 집의 맏이었다. ‘큰 물에서 크게 커라’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인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이모가 사는 함경북도 청진시로 유학을 떠났다. ‘전교 1등’이었던 성격이 조기유학의 계기가 됐다. 여기에 ‘집안에 있는 천재보다는 나다니는 바보가 낫다’는 어머니의 철학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은아씨는 청진에서 공부를 이어가지 않았다. 12살에 처음 만난 ‘미성’(재봉틀)에 재능을 보이면서 학교는 멀어졌다. 3년간 ‘시다’ 생활을 하며 재봉일을 배웠다. 학교보다는 공장으로 출근했다. 의무교육인 탓에 학교는 다녀야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상업전문학교에 진학해 ‘옷 설계사’, ‘옷 재단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이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장사를 하는 거였다.

청진2사범대학교에 입학, 잠시나마 대학생살도 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그때 대학 공부는 사치였다. 공부보다는 장사가 적성이 맞는 것도 같았다. 옷을 만들고 팔아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 길이었다.

은아씨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원단에 대한 욕심이 컸다. 그러던 2006년 어느날, 함께 일하던 친구가 꼬드겼다. 나진·선봉에 가면 좋은 천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만 믿고 친구와 함께 낯선 도시를 찾아 나섰고, 새벽에 강을 건넜다. 그리고 만세상을 봤다. 새벽인데도 간판의 불이 반짝반짝했다. 그런데 그 곳은 진짜 만세상이었다. 강은 두만강이었고, 땅은 중국이었다. 은아씨의 ‘인생 1막’ 마지막 장면이었다.

◇친구에 속아 인신매매 신세로

은아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신매매에 걸려들었다. 친구가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다. 그렇게 정처없는 중국 생활이 시작됐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할아버지이든, 알코올중독자이든, 장애인이든, 브로커는 돈만 받고 팔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차피 팔려갈 것이라면 걸보기라도 그럴까한 집으로 들어가자고, 네다섯 곳을 거치는 동안 가장 크고 맛있는 집을 골랐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졸랐다. 이 집으로 보내달라고.

은아씨는 운이 좋았다. 넉넉한 집안이었다. 그 집엔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노인 아들과의 혼사였다. 하지만 아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한 달가량 그 집에 머무르다가 도우미아주머니와 함께 시내로 거처를 옮겼다. 시내에 있는 집에서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도우미아주머니는 감시자였다. 남편은 그곳에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중국말을 못하니 답답했다. 중국어를 배우기로 마음 먹었다. 그 때부터 자는 시간 빼고 줄곧 TV만 봤다. 동작을 보고 말을 배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간단한 말은 할 수 있게 됐다. 도우미아주머니와 시댁 간의 전화통화도 알아듣게 됐다.

은아씨가 그 집으로 들어간 연유는 ‘대리모’였다. 은아씨와 결혼할 아들은 3대 독자였다. 부인이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대리모를 구한 것이었고, 그게 은아씨였다. 하지만 아들은 대리모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 탓에 은아씨는 남편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혼자 살았던 것이다.

1막-북한에서의 삶

가족 생계 위해 12살에 재봉 배워

2막-중국 인신매매의 삶

친구 꼬임에 빠져 대리모로 팔려

시댁 도움으로 풀려나 한국행

3막-대한민국에서의 삶

두 아이 키우며 대학원 석사 과정

“3대가 북적북적 하니 즐거워요”

그러던 어느날 중국 공안이 은아씨가 머물던 집을 급습했다. 시댁과 강들을 뱀던 도우미아주머니가 탈북민이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다. 복속되는 순간 죽은 목숨이 된다. 두려웠다.

그녀는 시댁에 매달렸다. 제발 꺼내달라고. 시댁에서는 3만 위안(600만원)을 주고 그녀를 꺼내줬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서 살라고 권했다. 아들의 뜻이 너무 완곡해 더 이상 대리모는 필요없게 됐다면서, 인생 2막,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삶이었다.

◇낯선 한국에서 인연을 만나

2009년 9월 태국을 거쳐 한국땅을 밟았다. 그리고 하나원 수료 후 2010년 2월 광주에 정착했다.

한국 생활은 낯설었다. 이야기마다 외래어가 섞인 탓에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했다. “어느날 아파트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만원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1만원을 내야한다는 얘기구나 싶었죠. 그래서 얼른 내렸죠. 그 이후 한동안 계단을 이용했어요. 그러다가 급한 일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네요. 그런데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1만원 군요더마 엄청 좋아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아직도 엘리베이터 안타니. 만원이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꼭 차면 만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삶의 무게 때문에 북한에서 그만 둔 공부를 한국에서 뒤늦게 이어가고 있는 서은아씨. 그녀는 전남대 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서은아씨가 아들 태웅이의 손을 잡고서 환하게 웃고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낯설었다는 것이다.

은아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한 데는 남편의 역할이 컸다. 광주에 온지 1년째 친구의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임신했다. 잘하는 일을 찾아 취직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 그때 남편이 공부를 권했다. 북한에서는 가족을 먹여살리느라 공부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다들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이력서의 최종 학력은 본다면.

남편의 그 한마디에 은아씨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부랴부랴 2년제 전문대학에 등록을 했고, 2013년 3월 만학도가 됐다. 이어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했고, 올해 2월 졸업했다. 지금은 전남대 정책대학원 사회문화복지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녀는 현대해상 하이플래너(보험설계사)다. 낮가림이 심했는데 하이플래너로 일하면서 성격도 바뀌었다. 그리고 사람을 믿게 됐다.

은아씨는 나주에서 시부모와 함께 산다. 3대가 모인 대가족이다. 북적북적해 즐겁다. 그녀는 “아무도 없으니 남편 부모가 제 부모가 됐다. 그냥 엄마·아빠라고 부른다”며 미소지었다.

/나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당당하게 얘기하라 돈에 쫓기지 말라 열심히 뛰어라

서은아씨의 한국 정착 3계명

‘당당하게 얘기하라’, ‘돈에 쫓기지 말라’, ‘열심히 뛰어라’

서은아씨가 후배 탈북민들에게 들려주는 한국 정착 3계명이다.

은아씨는 탈북후배들을 자주 만난다. 밥 한 끼 사주며 꼭 하는 말이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것이다. 말투가 다른 탓에 처음 만난 남한 사람이면 누구나 ‘중국에서 왔냐’고 되묻는단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단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알게 됐다. 아무 뜻없이 그냥 물어본 말이었다는 것을. ‘잘못에

서 인심난다’고 자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왜곡해서 듣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다. 질문의 의도가 나와 얘기해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숨길 필요없이 당당하게 대답하라고 조언했다. 당당하게 말하면 북한에서 온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다면.

“돈에 쫓기지 말라”고도 했다. 상당수 탈북민은 돈이 급한 나머지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조금 늦더라도 심사숙고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으라고 권했다. 돈이 급하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다. 절대 유흥업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다. 헤어 나오지 못하면 몸도 버리고 삶도 버리게 된다는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은 뛰는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했다. 자칫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계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자립심을 기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나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신제품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대산프리모가발